

알리는 말씀

1.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평소처럼 진행하되, 설교시간엔 모두가 '이삭의 탄생과 대림절'이라는 주제 하에 묵상하고, 나누도록 합니다.
2. 새로운 처소(서울 서초구 마방로6길 37, B1층) 준비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사는 20일(화)에 하려 합니다. 시간 내 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주일) 성탄예배를 새 처소에서 드립니다.
3. 12월 25일(주일)에 오실 때 성탄카드와 함께 1만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 오셔 트리 아래 진열해 주시면 예배 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성탄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 이후 1층 카페를 빌려 간단한 다과회를 가집니다.
4. 중보기도
*후원아동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5. 지난 주일 예배 후 의결한 대로 '윗 동네 분'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주일(12/25)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meditation연주
윤성천	조경숙	이정자	양재용, 한혜리, 왕혜진

지난 주일(12/11) 헌금통계

헌금	
주일헌금	70,000원
감사헌금	200,000원
십일조헌금	150,000원
온라인	1,000,000원
합계	1,420,000원

우리은행
1005-003-406575
움오름교회

창립 2015년 3월 14일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17, 3층 (양재동313-7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

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4주

8권 50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움오름교회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김영언

- * 부름의 말씀 시 80:1-7 인도자
- * 주님의 기도 다같이
- * 찬송 ‘오소서, 평화의 왕’ 다같이

Capo 3 (Em) Gm (Em/D) Gm/F (C) Eb (B no 3rd) D(no 3rd)

Korean 1 O - so - so o - so - so, pyong-hwa eui im - gum
 2 O - so - so o - so - so, sa - rang eui im - gum

English 1 Come now, O Prince of peace: make us one bod - y.
 2 Come now, O God of love, make us one bod - y.

(Am) Cm (B no 3rd) D(no 3rd) (C) Eb (Em) Gm

u - ri - ga han - mom i - ru - ge ha - so - so.
 u - ri - ga han - mom i - ru - ge ha - so - so.
 Come, O Lord Je - sus; re - con - cile your peo - ple.
 Come, O Lord Je - sus; re - con - cile your peo - ple.

1.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2.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서로가 귀하 여기게 하소서
3.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주님 모두가 주를 따르게 하소서

- * 성서교독 118번 다같이
-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 * 찬송 114장 다같이

웃이트는 생각

“놀라운 이웃”

콤파트홀 개관공사가 한창인 지난 월요일 갑작스레 찾아온 몸살기운에 neo-citron을 3번이나 마셨습니다. 등줄기엔 땀이 계속 흐르고 졸음은 쏟아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해 밤새 끄끄거려다 아침 일찍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샘 왈 “한번도 코로나 안 걸리셨나요? ... 보통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대부분이 확진자이니 신속항원 검사 한번 해 봅시다”

콧속 깊숙이 키트가 왔다 갔다한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진료실에서 불러 다시 가보니 선명한 2줄이 보입니다. “확진” ... 격리처분 받고 집에 온 뒤 1년치 잠을 거의 몰아서 잔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분 단위로 잠을 깨고 자고...

공사하시는 분들과는 때로는 선 목소리로 통화하고, 때로는 단톡방을 통해 결정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제 드디어 “꺾였구나”라는 몸의 신호가 느껴질 무렵 많은 눈이 쌓여 대문 밖 골목까지 재설작업을 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재설작업하는 이웃집 사람에게겐 ‘확진’을 알리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뒤 서로 반대편에서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저녁식사를 하려던 때에 이웃집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준비하면서 죽을 좀 끓였어요~ 목이 많이 아프실텐데 드시고 기운내세요~ 저는 음식만드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릇은 집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오전, 오후 두번 아이 등하원때문에 나갈일이 있으니 부탁하실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대문 앞에 놓여있는 보온 팩 속에는 금방 끓인 ‘소고기 야채죽’이 사람의 온기를 한껏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내가 감탄하며 소리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웃을 만나다니!!!”

지금껏 살면서 이런저런 이웃을 만났습니다. 서로 정을 나눈 따뜻한 이웃들도 있었고, 골목길을 막아선 주차로 협조를 구하는데, 앞뒤 맥락없이 나와선 아내의 자동차 본넷을 내리치면서 “너희가 박ㅇㅇ대통령 보다는 똑똑하냐?”고 소리치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새로 이사온 이웃이 이토록 놀랍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분들이 애완견 보더콜리(매우 수다스러움 ^^)와 더불어 행복한 일상을 살도록 저도 더 좋은 이웃이 되려 합니다.

-소의걸음 ho

내 어린 크리스마스

-임영준

왜 그렇게 탐스러운 함박눈은
내 어린 크리스마스에만
핑핑 내렸을까

어떻게 그 산동네 으스스한 골목에
더 영롱하고 훈훈한 촛불이
뭉쳐져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캐럴과 종소리는
축복이 철철 넘쳐흐르고 있었을까

가슴이 부풀어 터질 것만 같았던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도 김재란
송영 '우리 기도 들으소서'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메 - 니

* 성경봉독 ... 창 21:1-34 ... 인도자
* 송영 '주의 말씀은'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될 니 다

말씀 ... 창세기22-'이삭의 탄생과 대림절' ... 다같이

기도 설교자

찬송 105장 다같이

* 예물봉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같이

Moderato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나 받은 귀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 봉헌기도 인도자

(봉헌담당: 양희철)

* 결단찬양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 축도 민수기 6:24-26 다같이

Meditation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피아노: 양재웅)

환영과 알림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애겐 소원이 하나있네 주님 다시오 실그날까
 지우리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마
 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수없네 우리교회는 이땅의 희
 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뵈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안에 예배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 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